

##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8-17(현대인의 성경)

### 1. 말씀

8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여러분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10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11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13 형제 여러분,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좋은 결실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좋은 결실을 얻으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4 나는 문화인이건 야만인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빛진 자입니다.

15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16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7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 3. 메시지

- 바울은 로마 교회의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8절)

→ \_\_\_\_\_

-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하나요? (9-10절)

→ \_\_\_\_\_

-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1-12절)

→ \_\_\_\_\_

-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16-17절)

→ \_\_\_\_\_

- 내 삶 속에서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 \_\_\_\_\_

- 바울은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느끼나요?

→ \_\_\_\_\_

- 바울은 9절에서 "여러분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나는 누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 \_\_\_\_\_

- 최근에 누군가와 믿음을 나누며 서로 힘이 되었던 경험이 있나요? 나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에게 그런 사람일까요?

→ \_\_\_\_\_

###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_\_\_\_\_

-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빛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나눌 책임과 열망을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을 나누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8-17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안전과 가족을 잃는 고달픈 삶으로 연결되었던 로마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격려와 위로였을 것입니다. 선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핍박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정하고, 위해 기도하며, 도움을 약속하는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빛을 갚는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중간 매개자로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깨달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없었다면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무익한 종이라 여기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빛진 자 의식'에서 나오는 바울의 열정적인 행동의 동기는 그가 받은 은혜와 책임 의식 이였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의 엄청난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한 번쯤 우리의 영적 생활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역시 복음에 빛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주위의 아침하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히 하고 더욱 세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6. 기도